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시간이란 무엇인가? 3000년 동안 인류가 풀고 있는 숙제다. 사전에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정의한다. 길이, 질량과 같이 물리량을 정하는 기본단위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시간의 실체와 근본을 풀어낸 정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미흡하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 8명의 역사가와 철학자, 과학자가 함께 쓴 책이다.

이집트의 관습 때문이라고 한다. 매일 밤에 뜨는 별들을 순서대로 12개 또는 36개 그룹으로 묶은 데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이집트인들이 행정년도를 36주일로 생각한 것도 오전에 뜨는 별들의 그룹이 36개였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한 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것은 완전히 다른 제도에서 비롯됐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60진법의 유산이다. 3000년 동안 가장 널리 사용된 방식은 하루 24시간이 아니었



60초 1분인 까닭... 24시간 이집트서

년부터 국제협정에 따라 자정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자정, 즉 0이다.

그렇다면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시간을 정했을까?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달을 중심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태음력에서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한 주기로 달력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달의 주기는 약 29일 반이기 때문에 가끔씩 한 달은 29일이나, 30일이 되기도 한다. 약 5000년 전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등장했을 때, 이미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다.

하루는 왜 24시간으로 나뉘었을까? 또한 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눈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화

시간은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조사됐다. 시차 적응 같은 현상 또는 근무형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은 불면증이나 피로, 소화불량 같은 잘 알려진 증상을 유발한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은 역사와 함께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시계와 달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 2002년 <시간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의 개정판이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 스텐터디 캐그리디 엮음 | 남경태 옮김 | 휴머니스트 펴냄 | 1만8000원

'스님들의 어머니' 효심 통해 본 불교

불교는 지극한 효행을 갖었다. 다만 가르침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조선시대 유생들은 근본이 없는 가르침이고 집단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출가자들은 생나루 가지를 찢는 아픔을 부모의 가슴에 안겨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도 닦는다'는 이유로 효에 대한 일각의 무지가 방치돼 왔다.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는 부처님

과 역대조사, 뛰어난 선지식들의 효심과 효행을 찾아 불교의 본래면모와 본래자리를 되찾아 놓으려한 책이다.

조계종 종정 법정 스님부터 고산 스님(조계종 전제대화상), 정무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등 12명의 선지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록이 담겨져 있다.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 | 법정 스님외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000원

인간 법정, 그 위대한 '무소유'

소설가 정찬주씨 알려지지 않은 법정 스님 청소년기와 출가 사연 등 엮어

"세상은 이제 '스님 법정'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러나 '인간 법정'을 아는 이는 드물다."

성철 스님의 삶을 다룬 소설 '산은 산 물은 물'로 잘 알려진 정찬주 작가가 법정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엮었다.

"스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생하다. 스님께서 불일암에 사실 때의 일이다. 스님은 나에게 '세상에서 살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과 삼귀오계(三歸五戒)를 주면서 계를 받는 공덕에 대해 법문을 했다."

이렇듯 작가는 법정 스님과 개인적 인연이 깊어 재가제자가 됐다. 그 뒤 불일암에 더 자주 내려갔고,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 산수시간에 일본인 훈내를 내는 조선인 담임교사에게 반감을 표시하다가 고무슬리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던 이야기, 우수영 선창에서 여객선 매표소를 하는 작은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매표를 팔았던 이야기, 원고지를 만질 운명인지 고등학교 때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 등 저자는 스님의 저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소년시절과 학생시절의 얘기를 들려준다.

"오호라! 나는 부처님 가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불법인연이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구나. 부디 수행을 잘해 법(法)의 정(頂)수리에 서야 한다. 이제부터 나를 법정(法頂)이라 부르겠다" -본문 '식발' 중에서

"오랫동안 법정을 시봉했던 김상사 초대주지 청하이 광주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청하교도 필담을 나왔다. '생사 경계가 어찌하십니까?' '원래부터 없다' 법정은 생사마저 무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본문 '불속의 연꽃' 중에서



불일암으로 찾아가 법정 스님을 친견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

<소설 무소유>에는 법정 스님이 태어나 출가하고, 수행하고, 입적하기까지의 모든 행적이 섬세하면서도 담백한 문체 속에 잔잔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정찬주는 법정 스님 사유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무소유' 사상의 단초를 스님이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됐으며 이를 또 어떻게 자신만의 '법'

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상좌 혹은 속가대중들과 어떻게 나누고 실천했는지를 소설 특유의 설득력과 직관적인 묘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 무소유 | 정찬주 지음 | 열림원 펴냄 | 328쪽 | 1만5000원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우리 스스로가 현실 창조의 마법사

'내 안의 가능성' 과학자 말로 설명

평소 '긍정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인들로부터 술하게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긍정은 나와는 별개'라고. 염세주의자를 자처하던 나에게서는 별로 와 닿지 않는 말이였다.

그러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서 나를 시련을 겪고 당시 열풍을 일으켰던 <시크릿>이란 책을 접하게 됐다. 종교회론자였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신심 깊은 어머니의 말이란 표현만 다를 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접한 자기계발서들은 긍정·시각화·감정해방요법을 비롯해 '마음속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등 실천을 통한 경험을 강조했고, 이는 무수한 긍정 예찬론자를 만들고 인터넷 모임까지 만들어 냈다. 이번에 소개할 책 <블립(Bleep)>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책들보다는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듯하다.

<블립>은 'What the bleep do we know'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것이다. 2004년 최초 개봉된 전 세계 30개국에서 상영된 이 다큐는 양자물리학과 영상, 신경생리

학에 관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같은 생각·현실만을 반복하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블립>은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찬 우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현실을 반복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는 이유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뇌의 놀라운 능력을 탐구해 간다. 그리고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 현실창조의 마법사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우주가 비어있고 물질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물질'은 근본적으로 없다. 우주는 전혀 물질적이지 않다. 단단한 공이라고 보듯 생각하는 원자는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다. 원자핵도 단단하지 않다. 전자처럼 계속 소멸과 존재를 반복한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물질들에 대해,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

다큐멘터리에서는 스토리 중간에 과학자, 영성가들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했다. <블립>은 이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라 조금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설한 우주·과학적 가르침을 대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블립(Bleep) | 윌리엄 안츠·마크 빈센트·벤티 체스 공저 | 박인재 옮김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5000원 이나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ooks including '아름다운 마무리', '영혼의 모음', '버리고 떠나기', etc.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Advertisement for '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featuring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부처님 오신날 천수천안 점안식 기도' with details on date, time, and location.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Minsookjukyeom) highlighting its health benefits and produ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과일의 왕 두리안' (Durian)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durian and promotional text.